

# 잇단 산불… 낮잠자는 감시초소

광주시가 산불 예방을 위해 올해 무등산 등 15곳에 감시초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감시초소가 텅 비어있고, 진화장비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텅 빈' 산불감시초소=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120일 동안을 '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설정,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꾸렸다.

광주시도 시정과 구청 등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동구 2곳(깃대봉·내지마을 입구), 서구 3곳(황새봉·백마산·개금산), 남구 4곳(금당산·덕남정수장·건덕산·봉선동), 북구 4곳(장등동·매곡동·두암동·수곡동), 광산구 2곳(삼도동·망산·운진산·토봉) 등 모두 15곳의 산불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산불감시초소는 흉가처럼 방치돼 있었다.

8일 오후 2시30분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 뒷산 깃대봉 초소에 감시요원은 없고 대신 쓰레기만 수북이 쌓여 있었다. 산불감시에 필요 한 창문은 '산불조심'이라고 쓴 대형 현수막에 가려 있었다. 동구 내 남동 내지마을 입구 초소도 7일 오후 5시 30분 본사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근무자가 없었다.

산불감시 요원의 봄철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서구나 남구, 북구의 산불감시초소도 사정은 비슷했다. 서구 황새봉 초소는 폐쇄상태였고, 남구 봉선동 초소(7일 오후 4시)에도 감시요원은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북구 수곡동 초소(7일 오후 12시 40분)에는 감시요원 대신 휴대용 베녀만 덜



건조한 날씨로 산불 비상이 걸린 8일 오후 조선대 뒷산 깃대봉 산불감시초소. 감시요원은 온데간데 없고 '산불조심'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초소 창문을 가린 채 걸려 있다.

/워커리자 jrwi@kwangju.co.kr

## 감시요원 없고 초소엔 쓰레기 더미만

## 진화장비도 울산 등他지자체의 절반

렁 있었다. 두암동 초소는 쓰레기장

을 방불케했다.

많은 600만 원을 들여 만든 산불감시 초소가 쓰레기장으로 변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초소에 근무하는 각 구청의 공익요원 등이 20여 명에 불과해 모든 초소에 배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하지만 북구청 관계자는 공색한 변명만 늘어놨다. 이 관계자는 "감시요원이 꼭 산불초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며 "주변을 돌며 경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 '산불조심'=광주지역은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지역의 '실습습도'(나무의 건조도 지수)가 35% 밑으로 내려가면 기상청은 해당지역에 '건조주의보'를, 25% 이하일 때는 '건조경보'를 내린다. 건조경보란 곧 산불경계경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흐리고 건조한 날씨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광주에서는 8일 오후 2시 광산구 지정동 포사격장에서 산불이 나 임야 3㏊를 태우는 등 올해 9건의 산불이 발생해 7.2㏊를 태웠다.

/오광록·이종환·인현주 기자 golee@

◇열악한 산불 진화 장비=진화장비도 크게 부족하다. 광주시는 산불진화 차량은 10대, 등집펌프는 981점, 소방헬기 1대, 헌대용 무전기 222대를 갖추고 있다. 진화차량 23대, 등집펌프 1천900점, 소방헬기 2대, 무전기 511대를 갖춘 울산에 비해 두 배나 열악한 수준이다.

산불 진화 인력도 광주는 전문에 방진화대원 42명과 산림보호 순찰자 26명, 공익근무요원 77명 등 총 145명을 갖추고 있는 반면, 울산은 350명이나 된다.

/오광록·이종환·인현주 기자 golee@

## 동구청 저소득가구에 생활 안정 자금 융자

광주시 동구청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민소득지원기금'과 '생활안정기금'을 응자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6~30일까지 보름간이다.

소득지원기금은 가구당 2천만원 이내, 생활안정기금은 1천만원 이내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이율은 3%다.

문의: 거주지 동사무소 및 복지사업과(608-2403)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건설공사 부실 시민들이 막는다

### 광주 감시단 활동 돌입

시민들이 직접 대형 건설공사의 부실 시공 예방에 나선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발주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감시활동을 펼쳐 '범시민공동감시단'이 최근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토목·건축·기계·전기·소방·조경 등 6개 분야 64명의 시민과 전

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동감시단은 앞으로 2년간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현장에 대한 감시활동은 물론 현장조사와 재시공 요구 등 강력한 감시활동을 펼쳐 된다.

감시단은 다음달 발주처인 시와 감리단 등과 함께 10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합동점검에 들어간다.

시는 1억원 이상 시 발주 건설공

사를 대상으로 부실공사 신고포상금제 운영을 운영하고, 10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시민단체 관계자 초청 현장설명회도 개최한다.

광주시는 지난해에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국지도 49호선'(본선~임곡간) 등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31곳을 점검, 안전시설 미흡 등 93건에 대한 개선사항을 찾아내 조치했다. 또 시공관리 우수현장 2개소에 대해서는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문의: 거주지 동사무소 및 복지사업과(608-2403)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중증장애인 도우미 보내드립니다"

## 내달부터 목욕·청소·외출 등 보조 서비스

### 월 20~80시간 제공…희망자 13일까지 신청

회사원 A씨는 선천성 소아마비로 1급 장애로 관광을 받은 동생(30)과 같이 산다. 부인도 동네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A씨 부부는 남동생을 혼자 집에 남겨둔 채 출근하는 일이 항상 마음에 걸렸다.

바쁜 점심시간이 끝나는 대로 부인이 잠간 집에 들어 시동생 점심을 쟁기긴 하지만 다시 돌아서는 발걸음은 아침보다 더 무겁다.

A씨 가정이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1급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신청하면 월 20~80시간 돌보미(활동보조인력)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받는다.

구체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활기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소득기준 없이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 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1급 중증장애인 가정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월 20~80시간의 서비스가 차등적으로 제공되며, 독거 장애인 등 활동보조 없이 기본 생계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최대 월 180시간까지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세면·목욕·식사·대소변 수발 등 신변처리 지원 ▲청소·쇼핑·양육 등 가사 지원 ▲당독·대필보조 등 커뮤니케이션 지원 ▲안내도우미·등하

교·출퇴근 도움 등 이동보조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 등 상담 서비스 등이 있다.

서비스 희망자는 연중 수시로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방문 조사를 거쳐 바우처(서비스 이용권)를 제공받을 수 있다. 5월부터 서비스를 받으려면 13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원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하거나 2급 이하 장애인이 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개인 부담으로 바우처를 주고 구매할 수 있다.

광주시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교육기관으로 광주장애인총연합회와 광주장애인우권의문제연구소 등 12곳을 지정하고, 이를 기관이 활동보조인을 모집·교육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했다.

활동보조인 모집 및 서비스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사회복지과(613-3240)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있다.

티켓 구입은 한 사람이 1일 6매(월 12매)까지 가능하며, 학생들은 단체 구입도 할 수 있다.

판매점은 총장서점·삼복총장점·삼복운남점·시청복지매점·영풍문고 터미널점 등 6곳이다.

지난해의 경우 1만7천여명의 시민들이 45개 작품(국작 4·무용 9·연극 24·음악 8)을 관람하기 위해 사랑의 티켓을 구입했다.

5천원인 학생권의 경우 3천원에, 1만5천원인 일반권은 7천원, 1만원 일반권은 5천원에 각각 구입해 연극·무용·음악 등 원하는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올해 8천만원을 편성했고, 티켓 종류도 기존 2종에서 3종으로 늘렸다.

5천원인 학생권의 경우 3천원에, 1만5천원인 일반권은 7천원, 1만원 일반권은 5천원에 각각 구입해 연극·무용·음악 등 원하는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광주시는 앞서 첨단과학단지 내에 30만7천400㎡(9만3천평) 규모의 LED집적화 단지를 조성해 지난 3월까지 기반조성 공사를 마무리 하고 현재 LED업체가 입주하고 있다. 입주가 완료되면 연 3천억원 이상의 매출과 2천여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LED는 고효율·빠른 응답성·긴 수명 등의 장점 때문에 가전기기·자동차·건축·의료기기 등 조명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기존의 제품을 대체할 차세대 광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 발광다이오드 분야 전문 인력 양성

### 첨단산단에 '산학 맞춤형' 10월 개소

새로운 광원(LED)으로 각광 받고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luminescent diode)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할 '산학맞춤형 연구센터'가 오는 10월 광주에 문을 연다. 광주시는 8일 "LED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모두 76억원을 들여 광주시 북구 오룡동 첨단과학단지 내 5천600㎡ 부지에 연면적 1천800㎡·지상 2층 규모의 산학맞춤형 연구센터 건립공사를 이달 중순 착공한다"고 밝혔다.

시는 10월까지 센터를 완공해 1층에 개방형 실험교육을 위한 광소자제조공정 실험실(클립룸·468㎡)·광통신 연구실 등을 구축하고, 2층에는 광부품 연구실·강의실 등을 갖춰 본격적인 LED전문인력 양성에 들어간다.

/조감도



광주시는 앞서 첨단과학단지 내에 30만7천400㎡(9만3천평) 규모의 LED집적화 단지를 조성해 지난 3월까지 기반조성 공사를 마무리 하고 현재 LED업체가 입주하고 있다. 입주가 완료되면 연 3천억원 이상의 매출과 2천여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LED는 고효율·빠른 응답성·긴 수명 등의 장점 때문에 가전기기·자동차·건축·의료기기 등 조명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기존의 제품을 대체할 차세대 광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 제주도 현지여행사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현지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중간마진을 돌려 드립니다▶

**또아아~ 뚜벅발, 노동(고) 출발**

**제주도 여행 2박 3일 78,000원**

가족끼리, 친목, 계모임… 모두들 환영합니다. 1일 **한라산등반+1일관광도** 가능합니다. (₩88,000원)

분체예술원, 일출랜드, 승마체험 등 다양한 체험관광을 해보세요 ~

**목포 출발 "목카투어" 78,000원**

★일정 · 1일차: 목포국제어객터미널 (09시 30분 또는 15시) 출발~호텔1박 · 2일차: 제주관광 또는 한라산등반 ~호텔1박 · 3일차: 제주관광~제주항(17:30) 출발 (단, 일요일은 16:30출발)

★출발일: 매일출발(단, 토요일은 제외)

~토요일은 1박2일이나 3박4일 일정만 가능

★포함내역: 왕복선박, 숙박2박, 조식2회, 석식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료

**고흥(복) 출발 "녹동투어" 78,000원**

★일정 · 1일차: 녹동 남해고속터미널(10시) 출발 ~호텔1박 · 2일차: 제주관광 또는 한라산 등반 ~호텔1박 · 3일차: 제주관광~제주항(18:00) 출발 ~금요출발은 1박2일이나 3박4일 일정만 가능

★포함내역: 왕복선박, 숙박2박, 조식2회, 석식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료

**광주 출발 "2박3일" 항공+항공투어 159,000원(주중+주중) 169,000원(주중+주말)**

★렌트카 파격할인★  
전차증 75% 할인  
※네비게이션 포함

2박3일 항공플러스 369,000원